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해선[†] · 강경자*

서울정보기능대학 패션디자인 ·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과*

The Effect of Shirts-Color and Hat Color, Hat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Hae-sun Jeong[†] and Kyung-Ja Kang*

Dept. of Fashion Design, Seoul IT Polytechnic Colleg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3. 12. 17. 접수 : 2004. 5.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irts-color(Different-color, Same-color) and Hat color(Red, Blue, Beige, Grey), Hat design (Beret, Cloche, Bowler, and Capeline)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7-point semantic thirty stimuli color pictures of various combination of hair length, hair style, and type of hat design were manipulated by computer drawing. The subjects were 360 undergraduates living in Seoul, Kyunggi and Kyungnam. The experimental design was composed of 3 factorial desig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consisted of the 5 different dimensions.(concentration of attention, attractiveness, gracefulness, activity, tenderness).

Concentration of attention, elegance, and tenderness in case of a hat as a clue, elegance and tenderness in case of the color of upper clothes as a clue, and all the factors except attractiveness and elegance in case of the type of hat as a clue were significant factors to differences of appearance.

In regarding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each variable, the combination of Hat color and Shirts-col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enderness, Hat color and type of hat design on concentration of attention, elegance and activity.

Key words: shirts-color(상의색), hat color(모자색), hat design(모자유형), impression formation(인상형성).

ㅎ

I. 서론

현대인은 급변하는 대중성과 익명성으로 차별화된 미의식을 추구하면서 패션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악세서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악세서리는 코디하는 방법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가 달라질 뿐 아니라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악세서리중 모자는 개성을 드러내기엔 적합한 복식요소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며 변화해 왔으며, 의상의 부속품이 아닌 패션을 주도하는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모자의 존재가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DeLong(1968)은 신체부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 교신저자 E-mail : hsjjeong@kopo.ac.kr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된다¹⁾고 하였다. 또한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인상을 전달받게 된다. 즉, 지각자는 눈, 코, 입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에 의한 얼굴 윤곽 등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Gestalt)를 이루어 지각하게 되므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²⁾(Kaiser, 1990)고 하였다. 또한 나광주(1989)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연구에서 의복이 53.3%, 헤어스타일이 46.7% 인상형성을 좌우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주관적 변화와 변화요소 즉, 자신이 생각할 때 의복과 헤어스타일 중 어느 것을 변화시킬 경우에 자신이 더 달라져 보인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는 의복이 33.55%, 헤어스타일이 66.45% 였으며, 객관적 변화와 변화요소인 남이 나를 보고 달라져 보인다고 할 때는 의복이 41.9%, 헤어스타일이 58.06%로 헤어스타일이 사람을 더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의복이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헤어스타일 또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헤어부분이 의복에 비해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쉽게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⁴⁻⁷⁾들은 의복색과 관련시킨 인상형성과 이미지 지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근래에는 헤어스타일과 얼굴형에 관한 미용관련 연구⁸⁻¹¹⁾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패션 약세서리의 일부인 모자와 관련시킨 인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 중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선정하고 이들 모자의 색상은 빨강, 파랑, 베이지, 회색으로 변화를 주고, 상의는 형태를 통제하고 색상에서 모자색과 동색 및 이색으로 변화를 준 후, 이들 단서의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 단서들이 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에게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인상형성과정을 거치게 되며, 한 번 형성된 인상은 변하기 어렵고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인상의 형성과정에서 지각자는 주어진 정보 중 신체적 외모나 의복변인과 같은 가장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단서에 근거하여 범주화에 의한 인상형성을 이루게되며 동일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연령, 성별, 성격, 과거의 경험, 교육 등에 따라 자극을 지각하는 정도에서는 개인차가 있게 된다.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

- 1) M. R. DeLong,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ournal of Home Economics* 6(1968), pp. 784-788.
- 2)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 3)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 20.
- 4) 이주현, 조근호,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 5) 이해숙, 김재숙, "의복디자인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 색, 부너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1995), pp. 349-360.
- 6) 이향미, 김재숙,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격식차량, 색, 및 백락의 영향:내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1998), pp. 312-320.
- 7) 최수경,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돈, 스커트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2003), pp. 459-473.
- 8) 나광주, *Op. cit.*
- 9) 김양표,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0) 김복숙,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1) 심애경,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¹²⁾.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대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Asch(1946)는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특성(central trait)이 있고, 이에 따라 주변특성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며 인상형성 측면에서의 중심특성의 영향력은 백락에 따라 변화한다고 밝혔다¹³⁾.

Conner, Peters와 Nagasawa(1975)의 신체와 헤어스타일, 의복의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만으로 지각되거나 사교적인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고 신체와 헤어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대상 즉, 신체와 의복,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 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¹⁴⁾.

또한 Lennon과 Miller(1984)는 헤어스타일, 스커트의 길이 및 구두모양 같은 특정한 신체적 외모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복합효과를 연구한 결과 어떤 하나의 신체적 외모 단서의 영향은 비슷한 단서들이 있을 경우에는 줄어들고 비슷하지 않은 단서들이 있는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2.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1) 의복과 색상

의복에 표현된 색상은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요소로서 의복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며, 색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의복 이미

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계절감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¹⁶⁾. 그리고 착용자의 내적 표현뿐 아니라 성별, 연령, 성격 등을 구별해주며 적절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외모를 가꾸어 준다¹⁷⁾.

의복의 색상은 대인지각에 있어 의복 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서 지각되며, 의복 착용자의 모습을 배경으로부터 전경(前景)으로 분리시키거나 신체 표면을 하나로 통합 또는 몇 개의 표면들로 구분하여 지각하게 된다¹⁸⁾.

Francis와 Evans의 연구에서는 짙은색 의복이 관리직 직원여성의 능력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또한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의복착용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¹⁹⁾는 결과가 있었으며,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 색의 명도와 의복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착용자에 대한 호감평가에서 의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유형은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²⁰⁾고 하였다.

이인자²¹⁾외는 빨간색 계통을 선호하는 사람은 따뜻하고 여성적이며 병량한 이미지를 주고 청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냉정하고 남성적이며 집착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이정옥 외(1995)는 한국도시 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색 변화에 따라 동일 디자인의 의복이라도 의복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다. 동일한 인물의 모습에 의복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가차원에서는 무채색이 더 긍정적이었고 활동차원에서는 유채색이 활동

12) 정양은,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1982), p. 177.

13) S. E. Asch,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1946), pp. 258-290.

14) B. H. Conner, K. Peters and R. H. Nagasawa,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1 (1975), pp. 32-41.

15) S. J. Lenon and F. G. Miller, "Salience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2 (1984), pp. 95-104.

16) 추선형, 김영인, "패션 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2002), p. 17.

17) 박화순,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 의복색 선호도", *복식* 26호(1995.11), p. 89.

18)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 10.

19) S. K. Francis,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 Motor Skills* Vol. 64 No. 2 (1987), pp. 383-390.

20) G. Winakor and R.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1987), pp. 137-47.

21) 이인자, 이경희, 신효경,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2001), pp. 80-81.

성이 더 높았다. 조화차원에서는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조화성이 높았다²²⁾.

이주현 등(1995)의 의복유형, 하의길어, 칼라유형, 의복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드의 색은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깔끔함 차원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²³⁾. 이주현 등²⁴⁾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검정색 Dress 착용자는 품위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가장 사무적이고 나이 든 사람으로, 빨간색 Dress 착용자는 주의집중성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차미승²⁵⁾의 연구에서 의복형태와 의복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현시성, 성숙성 요인에서는 의복형태와 상관없이 파랑과 보라색 의복은 중후하고 어른스럽게 평가되었고, 노란색 의복은 발달하고 귀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빨간색 의복은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인상을 주고,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긍정적이고 덜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모자의 색상

모털 코디네이션이 강조되고 현 시점에서 모자는 패션쇼(fashion show), 모드(mode)의 발표, 디스플레이(display)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²⁶⁾, 시대에 따라 그 장식성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모자는 경제적으로 저렴하여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며, 착시효과로 얼굴형을 쉽게 교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는 개인이미지는 의복에 못지 않게 변화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색은 모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모자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전문직이 탄생하면서 그 명칭을 millinery라 부르게 되었고, Millinery를 영어로는 Hat, 붙어로는 사뵈(Chapeau)와 같은 의미로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여성 모자류나 여성모자 제조업이라는 뜻을 지니며 여성모자가 남성모자 유행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이룩한 것이 17세기말로 알려지고 있다²⁷⁾.

모자의 유형은 브림이 없는 베레(Beret)와 필박스(Pillbox), 머리 전체를 감싸고 턱밑이나 목뒤에서 끈으로 매는 보닛(Bonnet), 후드(Hood)와 헤드 타이(Head Tie), 리본으로 장식하는 밀짚모자유형인 보터(Boater or Straw), 좁은 브림이 달린 형태인 볼러(Bowler), 이와 비슷하나 뒤의 브림이 휘어 올라간 타롤모자(Tyrolean hat), 둥근 크라운에다 앞에 챙이 달려 있는 자키(Jockey or Riding),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없거나 아주 좁은 클로시(Cloche), 브림이 넓은 케플린(Capeline)등 크라운과 브림의 유무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

인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에 쓰게 되는 모자는 복식의 종류 중 다른것 보다 중요하고 독특한 개성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모든 소재가 모자의 재료가 되며 색상 또한 다양하다. 모자의 색상은 다양하지만 주로 단색을 많이 사용하고 보색을 이용한 디테일을 이용한다²⁸⁾는 김경희의 선행연구가 있으며, 박혜경의 모자에 활용한 섬유재 연구에서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비율이 유채색이 72.5%이나 이는 유채색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무채색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모자의 배색에 있어서는 단색조화, 유사색, 다색, 대

22)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1995), p. 175.

23) 이주현, 조공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24) 이주현, 강혜원,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권 4호 (1995), pp. 984-994.

25) 차미승,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6) 이경순 외,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교문사, 1998), pp. 180-181.

27) 박민여, "모자이야기. Artis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7), 재인용, 서희정,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

28) 김경희,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35.

비색 순으로 나타났다²⁹⁾.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자의 색상 선택에서는 의복과 동일색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의복과 동색계통이나 반대색 계통이 가장 어울리는 배색인데, 이러한 색을 선택하는 것은 착용자들이 비교적 모자색 선택을 부단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⁰⁾.

역사적으로 두석을 연구한 결과는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모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모자와 관련한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Mahannah(1968)는 의복착용자의 가발색(금발, 흑발)과 의복색(빨강, 파랑)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이들 두 변인이 피 지각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Yin-Yang의 성격특성은 가발색과 의복색상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빨강색의 의복 색상에 흑발이 조합되었을 때 피지각자는 가장 남성적이고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³¹⁾고 하였다.

윤지성(2000)의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도 컬러의 변화와 의복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의복형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³²⁾.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헤어스타일이나 색상의 영향이 의복의 색상이나 형과 함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자가 헤어 위에 착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자의 다양한 색상과 형태 그리고 상의색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29) 박혜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 41.

30) 김영자, "현대한국여자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 54.

31) L. Mahannah,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quoted in M. J. Horn, L. M. Gurel,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165.

32)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101-102.

33)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낯*, 사계절 출판사.

34) 최영훈,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1990), pp. 104-105.

35) 이영미, "헤어스타일과 네크라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6) 박혜경, *Op. cit.*, p. 30.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힌다.

2. 실험절차 및 방법

1) 자극물의 선정 및 제작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낯'에서 제시³³⁾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준인 머리 전체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색상은 최영훈(1990)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³⁴⁾.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A전문대 패션디자인과 50명을 대상으로 모델의 얼굴을 직접 측정하여 평가집단(교수·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모자유형에 헤어스타일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쇼트로 선행연구³⁵⁾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스트레이트(Straight) 커트버리로 귀가 나오는 정도로 하였다. 이때 헤어의 색은 모자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20대의 모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흑갈색(5YR 2/4)으로 통제하였다.

자극물의 모자 소재는 봄, 겨울의 모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선행연구³⁶⁾와 천연섬유 중 두 번째로 많이 선호하여 겨울과 봄 등 본 연구의 조사시기와도 잘 맞는 펠트(Felt)로 통제하였다.

모자의 종류는 브림(Brim)의 크기 정도와 여성들

이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머리에 밀착되는 스타일인 베레(Beret), 크라운은 약간 깊고 브림은 하향인 클로시(Cloche), 둥근 크라운과 양옆이 약간 올라간 얇은 브림이 달린 형태로서 뽀뽀하며 주로 펠드로 만든 볼러(Bowler), 브림이 넓은 모자의 총칭인 케플린(Capline)의 4종류로 하였다. 모자의 색상은 사람들의 선호색상을 조사한 선행연구³⁷⁾를 참고하여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하고 유채색은 난색(빨강)과 한색(파랑)으로, 무채색 계통으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베이지색과 회색으로 하였다. 상의의 색상은 모자색상과 동일한 색상과 이색으로 구분하고 등색은 모자색과 같은 빨강, 파랑 그리고 베이지, 회색의 4가지색으로 하고 이색은 검정색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스타일은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축성이 있는 면소재의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 소매 셔츠의 상의로 통제하였다.

자극물은 이상에서 선정된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 유형을 디지털카메라 Canon Power Shot-G2로 촬영한 후사진 자극물을 4D-box CAD system과 Photoshop

6.0 program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두가지 상의색(등색, 이색)과 4가지 모자색(빨강(Red), 파랑(Blue), 베이지(Beige), 회색(Grey))에 각각 4가지 모자유형(베레(Beret), 클로시(Cloche), 볼러(Bowler), 케플린(Capelin))을 다르게 하여 3가지 독립변인이 모두 조합되도록 조작한 후 총 32개의 자극물(11×14cm)을 완성하였다. 모자색과 상의색 자극물은 <그림 1>에, 모자유형의 자극물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얼굴형, 상의형, 헤어색,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배경색은 중간명도의 회색으로 처리하여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통제하고, Epson stylus photo 895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 및 변인 조작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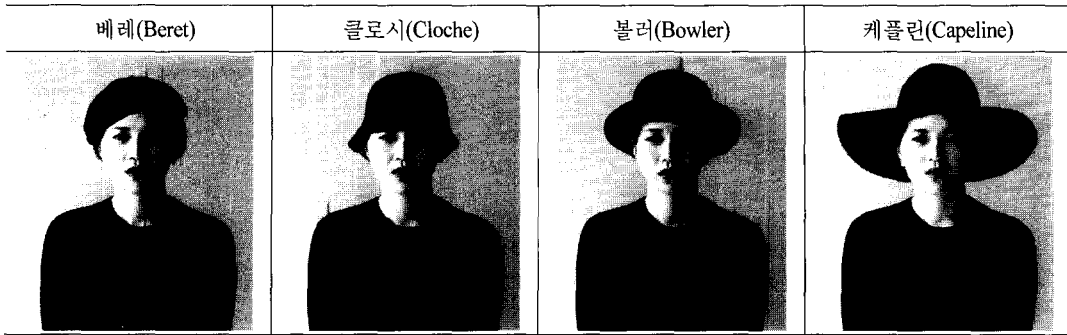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독립변인인 상의색(2), 모자색(4), 모자 유형(4)의 3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2×4×4)에 의해 조합된 총 32개의 자극물을 32개의

모자색 상의색	빨강(Red)	파랑(Blue)	베이지(Beige)	회색(Grey)
이색 (검정)				
등색 (모자색과 등색)				

<그림 1> 상의색 및 모자색 자극물(베레의 경우).

37) 박해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pp. 41-43.



〈그림 2〉 본 조사에 사용된 모자유형의 자극물.

〈표 1〉 자극물에 사용한 색상

빨강(Red)	5R4/14
파랑(Blue)	5PB2/6
베이지(Beige)	2.5Y8/2
회색(Grey)	N6.75
검정(Black)	N2.25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하나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between Subject) 설

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 문항으로는 먼저 의복 및 헤어의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³⁸⁻⁴³⁾등을 참고한 형용사 30쌍과 예비 조사에서 상의색 및 모자색에 따른 모자유형의 조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5쌍을 추가하여 총 35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인상평가 어휘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3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각 형용사쌍

〈표 2〉 자극물의 조작분류

모자색 상의색	빨강(R)		파랑(L)		베이지(I)		회색(G)	
	이색(검정) (D)	동색(빨강) (S)	이색(검정) (D)	동색(파랑) (S)	이색(검정) (D)	동색(베이지) (S)	이색(검정) (D)	동색(회색) (S)
모자유형								
베레(B)	RDB	RSB	LDB	LSB	IDB	ISB	GDB	GSB
클로시(O)	RDO	RSO	LDO	LSO	IDO	ISO	GDO	GSO
볼러(W)	RDW	RSW	LDW	LSW	IDW	ISW	GDW	GSW
케플린(E)	RDE	RSE	LDE	LSE	IDE	ISE	GDE	GSE

38)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9) 남미우, "상황, 의복의 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40) 문주영, 강경자,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41) 김복숙,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2)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3)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표 3>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 ²)
강한-약한	.770	.072	.004	.143	-.148	.640
강렬한-무난한	.711	.121	-.196	-.003	-.058	.562
대담한-소심한	.699	.082	-.172	.177	.031	.557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680	.207	.193	.257	.171	.638
화려한-수수한	.668	.213	-.239	-.024	.321	.652
외향적인-내향적인	.658	.178	.124	.427	-.012	.663
특이한-평범한	.525	-.007	-.390	-.039	.051	.432
오염한-청순한	.475	.090	-.258	-.072	-.122	.320
새련된-촌스러운	.175	.803	.164	.140	.014	.723
보기좋은-보기싫은	.057	.801	.205	.092	.084	.702
좋아하는-싫어하는	.047	.758	.101	.167	.028	.615
멋있는-멋없는	.220	.754	.188	.113	.076	.670
매력있는-매력없는	.167	.721	.163	.142	.091	.604
어울리는-어울리지 않은	.059	.640	.314	.199	.127	.568
색시한-색시하지 않은	.493	.534	-.092	-.073	.116	.556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092	.183	.741	.105	-.094	.611
깨끗한-지저분한	.076	.077	.721	.104	.043	.544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243	-.009	.662	-.338	-.008	.612
안정된-불안정한	-.174	.192	.660	.002	.124	.518
신중함-경박함	-.288	.130	.609	-.215	-.052	.520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024	.331	.585	-.264	.065	.527
품위있는-품위없는	-.007	.351	.569	-.237	.131	.520
차분한-차분하지 않은	-.350	.149	.527	-.298	-.149	.533
귀여운-성숙한	-.035	.096	-.138	.748	.089	.597
스포티한-드레시한	-.038	.094	-.222	.736	-.252	.665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094	.193	-.004	.688	.121	.533
활동적인-활동적이지 않은	.453	.217	-.019	.657	.103	.695
경쾌한-중후한	.386	.151	-.020	.624	.274	.636
현대적인-고전적인	.251	.342	-.134	.427	.257	.446
따뜻한-차가운	-.197	.074	-.001	.131	.718	.576
밝은-어두운	.501	.200	.010	.396	.560	.761
즐거운-우울한	.455	.254	-.035	.432	.537	.747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065	.282	.290	-.368	.483	.536
고유치	5.03	4.58	4.08	3.91	1.89	19.48
전체 변량의 %	15.2	13.9	12.4	11.9	5.7	59.0
공통 변량의 %	25.8	23.5	20.9	20.1	9.7	100.00

<표 4>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온유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 효 과	상의색(A)	.132	.206	1.244	1.291	8.702	9.643**	.065	.085	5.057	6.155*		
	모자색(B)	31.919	49.698**	.513	.533	6.331	7.016**	1.072	1.402	10.982	13.365**		
	모자유형(C)	8.504	13.241**	2.227	2.313	.615	.682	24.795	32.428**	5.075	6.177**		
2원 상호 작용	A×B	1.379	2.148	1.021	1.060	.387	.428	1.279	1.673	3.312	4.031**		
	A×C	.706	1.099	2.386	2.477	1.361	1.508	.271	.355	.316	.385		
	B×C	1.502	2.339*	.428	.444	1.943	2.153*	1.905	2.491**	.989	1.204		
3원 상호 작용	A×B×C	.494	.769	2.119	2.200*	1.126	1.248	.729	.954	1.726	2.101*		
M C A	변인	수준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상의 색	이색 동색	.01 -.01	.01	-.06 .06	.06	-.15 .15	.15	-.01 .01	.01	-.13 .13	.13	
A	모 자 색	빨강	.74	.06	.06	-.39	.07	.30					
		파랑	.23	-.10	.22	.12	-.47						
		베이지	-.57	-.03	.05	-.09	.24						
		회색	-.41	.52	.07	.07	.12	.23	-.10	.10	-.08	.31	
모 자 형	베레	-.05	.00	.00	-.05	.52	.23						
	클로시	-.40	.06	.06	-.05	.21	-.32						
	볼러	.13	-.22	-.01	-.01	.01	-.01						
	케플린	.33	.27	.16	.14	.12	.07	-.74	.46	.12	.21		
Multiple R			.589		.164		.291		.471		.390		
Multiple R ²			.347		.027		.084		.222		.152		

* : $p < .05$, ** : $p < .01$.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기도 및 서울, 경남에 거주하는 패션디자인관련학과 여대생 384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3년 3월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였

다.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에 따라 모자착용자가 주는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결과 총 30개 형용사 쌍에 대해 $\alpha = .87$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들 즉,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 귀염성, 여성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4, .88, .84, .82, .64로 나타났다.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독립변인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에 의한 인상차원의 구조 분석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33쌍의 형용사쌍을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도형과 Varimax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이어서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5.2%로 5개 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강한-약한, 강렬한-무난한, 대담한-소심한,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화려한-수수한, 외향적인-내향적인, 특이한-평범한, 요염한-정순한의 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주의집중성이라 하였다.

요인 2는 세련된-촌스러운, 보기좋은-보기싫은, 좋아하는-싫어하는, 멋있는-멋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은, 색시한-색시하지 않은 의 7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고, 매력성요인의 구성인자는 김복숙(1999)의 헤어스타일로 도출된 인상중 호오성요인 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⁴⁴⁾.

요인 3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깨끗한-지저분한,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안정된-불안정한, 신중한-경박한,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품위있는-품위없는, 차분한-차분하지 않은 의 8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품위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12.4%로 윤소영(2001)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

일에 따른 인상관련 요인분석⁴⁵⁾에서의 품위성 요인, 임남영, 강승희(2003)의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인상에 미치는 영향⁴⁶⁾에서의 품위성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는 귀여운-성숙한, 스포티한-드레시한,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보이는, 활동적인-활동적이지 않은, 경쾌한-중후한, 현대적인-고전적인의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활동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11.9%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밝은-어두운, 즐거운-우울한,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의 4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5.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김애경(2003)의 Head Image의 패션 감성에 대한 평가에서의 여성성 요인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⁴⁷⁾.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하며 대담하며 자신감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멋있고, 매력있는 것, 품위성요인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하며, 성숙하고, 품위있는 것, 활동성 요인에서는 귀엽고 스포티하며 활동적이며 경쾌한 것,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밝으며 여성스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0%로 나타났고, 온유성을 제외한 각 요인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원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은 착용자의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인상형성에 미치는 이들 단서들의 영향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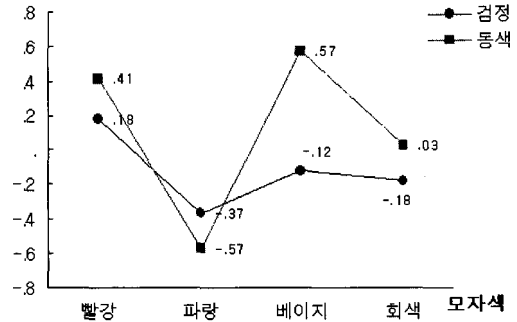
44) 김복숙 *Op. cit.*, p. 36.

45) 윤소영, *Op. cit.*, p. 34.

46) 임남영, 강승희,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2003), pp. 340-351.

47) 김애경,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45-47.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효과를 보면 단서가 모자 색일 때에는 주의집중성 요인 및 품위성, 온유성에서, 상의색일 때에는 품위성, 온유성 요인에서, 그리고 단서가 모자유형일 경우에는 주의집중성, 활동성, 온유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매력성요인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세가지 단서 즉, 모자색, 상의색, 모자유형이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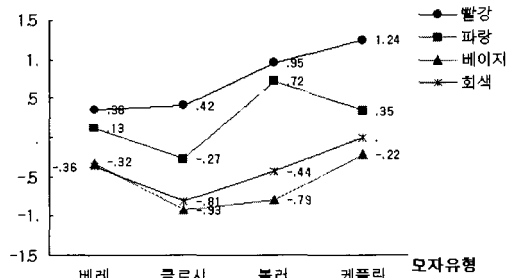
<그림 6> 온유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상의색과 모자 색과의 상호작용 효과.

의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림 3>~<그림 6>으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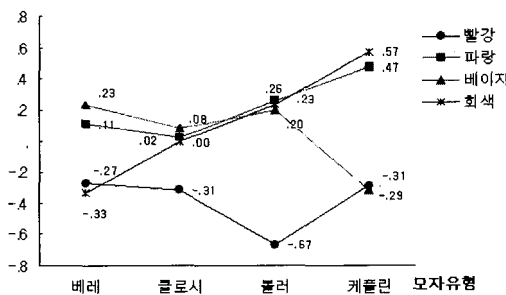
1) 주의집중성 차원

주의집중성 요인을 <표 3>에서 보면 모자색과 모자유형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자색은 주의집중성 인상차원에 지배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모자색을 빨강과 파랑의 유채색으로 할 경우 모자 유형에 따라 모자색간에는 주의집중성의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색이 빨강일 경우 케플린, 볼러, 클로시, 베레순으로, 강하고 강렬하며 대담하고 자신감 있으며, 화려하고 외향적으로 보여 주의집중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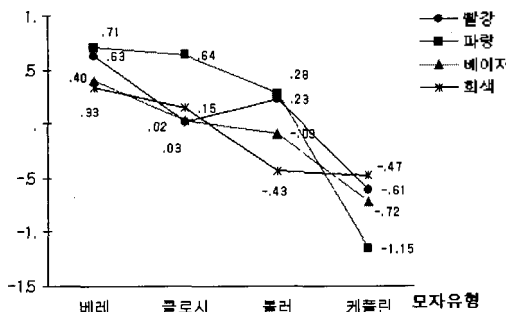
모자색상이 파랑일 경우 모자유형이 클로시일 때 부정적으로, 베레, 케플린, 볼러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볼러는 다른 유형보다 점수가 현저히 높아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러는 파랑일 때 가장 주의집중성이 높지만 케플린은 빨강일 때 가장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모자색에 따라 모자유형의 이미지 평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모자색이 유채색일 경우는 동일한 색상의 모자라도 모자유형에 따라서 주의집중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자색이 무채색인 경우는 모자색과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채색인 경우와는 달리 모자의 종류에 따라 모자색간에는 주의집



<그림 3> 주의집중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모자색과 모자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품위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모자색과 모자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활동성 평가요인에 미치는 모자색과 모자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

중성의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색이 베이지나 회색 모두 모자유형에 관계없이 주의집중성이 낮았으며 특히 클로시일 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볼러나 케플린 모자를 쓸 경우 모자색이 회색보다 베이지일 때 더 낮았다. 이와 같이 모자색과 모자형태의 조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자의 색상이나 모자형태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색과 형태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 모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차를 <표 3>에서 비교해 보면 모자색은 회색과 빨강인 경우, 상의색은 모자색과 동색일 때, 모자유형은 케플린이 가장 매력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파랑모자와 상의색이 이색인 검정일 때 그리고 모자유형에 있어서는 볼러인 경우 가장 매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매력성 차원에 상호작용하므로써 매력적인 인상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품위성 차원

품위성 요인을 <표 3>에서 보면 모자색과 상의색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자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유형은 모자색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색과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모자색이 유채색일 경우 모자유형에 상관없이 한색인 파랑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품위있는 것으로, 난색인 빨강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품위없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파랑색 케플린과 빨강색 볼러에서 이러한 인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모자색이 유채색일 경우 모자유형에 따라 한, 난색간에는 품위성 요인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색이 무채색일 경우를 보면 모자유형이 클로시와 볼러에서는 모자색이 베이지이든 회색이든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품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모자색이 베레와 클로시, 볼러와 케플린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무채색과 베레나 클로시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모자색이 베이지일 경우 모자색이 베레든 클로시든 모자색에 따른 품위성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에 모자색이 회색일 경우에는 모자유형에 따른 품위성 이미지가 차이를 보여 클로시를 쓸 경우는 품위 있는 것으로 베레를 쓸 경우는 품위가 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모자색을 무채색으로 할 경우 베레모를 쓸 때는 베이지 색을, 클로시를 쓰게 될 때는 회색을 선택하는 것이 단정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품위있는 인상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볼러와 케플린의 모자유형과 무채색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모자색이 회색인 경우는 모자가 볼러는 케플린이든 모자유형에 따른 품위성의 이미지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모자색이 베이지일 경우에는 모자유형에 따른 품위성 이미지가 크게 차이를 보여 다소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자색을 무채색으로 선택할 경우 볼러형 모자는 베이지나 회색을, 케플린형은 회색을 선택하는 것이 품위있는 인상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4) 활동성 차원

활동성 요인을 <표 3>에서 보면 모자유형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모자색과 상의색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모자색은 모자유형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모자색과 모자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모자 베레와 클로시는 색상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스포티하고 귀엽고 경쾌하고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이러한 경향은 모자색이 유채색인 파랑, 빨강색일 때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반면에 모자색에 관계없이 케플린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드레시하고 성숙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중후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볼러의 경우는 모자색이 유채색인 빨강, 파랑일 때는 긍정적으로 무채색인 베이지, 회색의 경우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무채색중에서도 회색일 때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지각되었다. 모자색상이 유채색인 경우 볼러와 케플린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모자색에 관계없이 볼러를 착용할 경우 경쾌하고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지만 케플린을 쓸 경우는 드레시하고 성숙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빨강 보다 파랑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자 착용자의 인상평가시 동일한 색의 모자도 모자유형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즉, 활동성 인상차원에는 모자색보다 모자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에서 보면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은 모두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중 모자색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색과 상의색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온유성 인상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유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상의색과 모자색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먼저 모자색인 빨강, 파랑 모자와 의복색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의복색에 상관없이 빨강모자는 따뜻하고 밝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파랑모자는 차갑고 어둡고 우울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의복색이 모자색과 동색일 때보다 강하게 지각되었다. 또한 모자색인 파랑 및 베이지와 의복색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모자색이 파랑인 경우는 의복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반하여 베이지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 의복색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즉, 베이지 모자에 검정 상의를 착용할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었으나 모자와 상의색상이 베이지로 동색일 경우 가장 따뜻하고 밝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같은 무채색인 회색 및 베이지와 의복색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색 배색 즉, 검정 상의에 베이지나 회색의 모자는 어둡고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모자와 상의색이 동색배색일 때 특히 동색인 회색보다 동색인 베이지가 더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의색이 모자색과 모자착용시 모자유형과 색상조합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자색이 한색인 파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유한 인상을 주고 상의색이 모자

색과 이색인 경우는 난색인 빨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갑고 우울한 인상을 주어 모자의 색상에 따라 온유한 이미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착용시 모자유형과 색상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서로 사용된 모자유형(베레, 칼로시, 볼러, 케플린), 모자색상(빨강, 파랑, 베이지, 회색), 상의색(모자와 이색 또는 동색)에 대한 모자착용자의 인상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3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효과를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활동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 주의집중성 차원의 인상에는 모자색과 모자유형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모자색은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단서들은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의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 각 요인들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세 독립변인 즉,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3원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의색이나 모자색, 모자형이 지각자에게 단독으로 지각되지는 않았더라도 세변인이 조합되어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상의색, 모자색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자형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모자색과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활동성 차원의 인상에는 모자유형만이 독립적

인 영향을 미치고 모자색은 모자유형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귀엽고 스포티하고 활동적이고 경쾌한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 온유성 차원의 인상에는 모자색, 상의색 및 모자유형의 세변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모자색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들 세변인은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고 모자색과 상의색은 상호작용하여 온유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은 착용자의 인상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미치고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모자의 영향력은 의복색과 모자색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Asch(1946)의 형태적 접근 이론을 지지해 준다.

또한 의복이 개인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헤어스타일의 영향이 보다 더 크다고 밝힌 선행연구(나광주, 1989)를 간접으로 지지하고 헤어부분에 모자를 착용하므로써 모자의 색과 유형이 의복색과 함께 인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특히 모자유형과 색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자색은 주의집중성 요인, 품위성 요인, 온유성 요인 차원에 상의색은 품위성, 온유성에 그리고 모자유형은 주의집중성, 활동성, 온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정보로 또는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또한 각 인상차원에 독립된 정보로 사용되지 않았던 단서들도 지각단계에서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의색, 모자색, 모자유형이 모자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인상형성 분야에 다루지 않았던 모자유형을 모자색과 의복색을 관련시켜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에 따른 인상차원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의복, 모자유형,

모자색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매우 적은 일부만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 착용자의 얼굴을 통제하기 위해 CAD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표정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자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의복, 모자의 유형, 소재, 색상, 헤어스타일을 포함시킨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1990).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휴 (1996).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3). "패션선택선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1976). "현대한국여자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우 (1992). "상황, 의복의 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 박민여 (1997). *모자이야기, Artis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경희대학교 출판부.
- 박혜경 (1990). "모자에 활용된 섬유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 (1978). *장모의 기초와 응용*, 진명문화사.
- 박화순 (1995).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 의복색 선호도." *복식* 26호.
- 서희정 (2000).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이경순 외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영미 (1997).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권 4호.
-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적색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 이혜숙, 김재숙 (1995). "의복디자인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 색, 무늬를 중심으로한 심층 면접."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양은 (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사계절 출판사.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 최영훈 (1990). *색채학개론*. 미진사.
- 추선형, 김영인 (2002). "패션 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 Comer, B. H., Peters, K. and Nagasawa, R. H. (1975).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1.
-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 Francis, S.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 Motor Skills* Vol. 64, No. 2.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Lenon, S. J. and Miller, F. G. (1984). "Salience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2.
- Mahnach, L. (1968).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 Winakor, G. and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